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교회 이전 감사 및 임직예배 안내
2020년 1월 26일 주일 오후에 교회 이전 감사 및 임직예배가 있습니다.
임직자(안수집사: 권이남, 권사: 최태신, 명예권사: 안영남, 우영이, 한순자)
- 2020 남녀 전도회 모임 안내
올해부터 전도회 모임을 갖습니다. 2월부터 모임입니다.
- 식사 친교 안내
식사 친교는 지금 구역에서 한주씩 준비합니다.
- 오늘 친교는 롱아일랜드 구역에서 준비합니다. 다음 주 친교는 베이사이드 구역에서 준비합니다.

1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01/19		우영이	롱아일랜드	한순자
01/26	최홍만	이관기	베이사이드	한순자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오늘의 말씀

- 본문: 요한복음 16장 25~33절 제목: 평안과 담대함
기도제목: 1. 성령충만하여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소서!
2. 고난과 환란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3. 회개, 기도, 믿음으로 성령충만한 한해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다고 할 때, 제자들에게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해결책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의 주제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자리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동행할 것이라는 것!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늘 붙어 있었던 제자들처럼, 이제는 제자들 옆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 성령님!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과 꼭 붙어 있으라!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1.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담대함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평화를 누리고 담대해 지나요? 세상의 평화와 담대함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형편과 사정이 좋으면 평안을 누리고 안 좋으면 평안이 깨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은 이런 세상의 평안과 담대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힘으로 환경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거나 유지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이 평안과 담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풍랑이 일어나는 배 속에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지점에서 담대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불어오는 바람이나, 시커먼 바다를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때 흉흉한 바다를 쳐다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쳐다 보아야 하나요? 그 상황에서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 보아야 합니다. 아!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제자들은 두려워하거나 낙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설사 배가 깨어지고 바다에 빠진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속사실을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속사실을 강건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일을 시험과 환란 속에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3. 우리가 해야 할 일 - 성령충만
성령충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모두가 자동적으로 성령충만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충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령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성령충만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충만을 위해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평안과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광야에서는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왕궁에서 밤새바를 범한 후에는 평안함이 깨어졌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 - "내 하나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느니라" 착하게 살아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령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배 안에 평안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어느새 평안과 담대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예배

	오전 9시30분(1부) 오전 11시(2부)	수요일예배(8시PM)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야고보서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기도: 우영이 집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23장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2번(시편 2편)	
찬 송 Hymn	466장	
기 도(Prayer)	송 명건 집사	
성 경 Scripture	요한복음 16장 25~33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설 교 Message	평안과 담대함	토요일 새벽기도회
▲ 헌 금 Offering	71장	고린도후서 강해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찬 송 Hymn	484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1월 행사

19일: 피택자 교육
26일: 교회 이전 감사예배 및 임직예배(오후 5시)

교회 지원단체

뉴욕 밀알 선교단, 주님의 식탁, 뉴욕 농아인 교회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희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Paul Lee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45-25 162nd St Flushing NY 11358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